



무거운 헤비다운 대신 가벼우면서도 따뜻한 경량다운재킷이 겨울철 아웃도어족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하이브리드 스타일의 초경량 제품인 '에트트 다운재킷'을 입은 블랙야크 모델 비투비 옥성재. 사진제공 | 블랙야크

훨훨 나는 '경량다운' 가라 앉는 '헤비다운'

아웃도어 트렌드 '이상 기온'

아이슬란드보다 서울이 더 추다는(실제로 그런 날이 있었다) 을 겨울이다. 그런데 아웃도어 업계에서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날이 추우면 겨우털, 오리털 충전재를 넉넉하게 채워 넣은 헤비다운재킷이 잘 팔리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겨울에는 헤비다운보다 가볍고 얇은 경량다운이 잘 팔린다. 아웃도어업계에서는 "다운 트렌드가 헤비에서 경량으로 이동하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래 경량다운은 여름부터 선풍 때 프로모션을 시작해 겨울에 들어설 즈음이면 이미 완판이 되는 아이템이다. 따라서 업 동설현에 경량다운이 잘 팔리는 것은 올 겨울 기온만큼이나 '이상현상'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다.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 기획본부의 정재화 이사는 "부피감이 강조된 다운은 가격이 높고 스타일리시하지 않다는 인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불황과 디자인 트렌드가 맞물려 경량다운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는 이어 "얇은 다운재킷을 코트나 방풍 아우터 안에 레이어로 받쳐 입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SPA브랜드(자사의 기획브랜드 상품)를 직접 제조해 유통까지 하는 전문소매점으로 저렴한 가격에 빠른 상품회전이 특징)에서도 올해 경량다운 제품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덧붙였다.

●보온·활동성·무게를 한꺼번에 잡은 재킷 인기

밀레의 대표적인 경량재킷 제품은 심플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초경량 '드리시티 다운', '그

랑프리 다운' 등이다. 1월 초에 출시해 3주만에 전체 생산물량의 30% 이상이 팔려나갔다. '드리시티 다운(19만9000원)'은 움직임이 많은 부문에 신축성이 뛰어난 우븐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해 활동성을 강화했다. 다운재킷 특유의 둔한 느낌을 줄였다.

블랙야크는 초경량 다운인 '에트트 다운재킷(25만8000원)'을 출시했다. 각 부위별로 최적화된 소재와 충전재를 매치한 하이브리드 스타일이다. 테프론 가공처리로 보온력을 유지하면서도 발수성이 뛰어나다. 땀이 빠르게 말라 쾌적하다.

이젠백은 한겨울에 레이어드 룩으로 입기 좋은 '키엘 라이트 구스다운(19만9000원)'을 선보였다. 아우터 속에 입으면 좋지만 실내에서 가볍게 걸쳐도 멋스럽다. 가벼운 구스다운을 숏털 85 : 깃털 15 비율로 충전해 다른 옷과 겹쳐 입어도 부해 보이지 않는다. 한겨울에는 미들레이어 재킷으로 입다가 봄에 아우터로 활용할 수 있다.

가볍고 움직임이 편한 패딩재킷도 인기가 높다. 겨울부터 쌀쌀한 초봄까지 입을 수 있어 실용적인 것도 장점이다. 아이더 '패시브 슬림 패딩재킷(18만원)'은 얇지만 따뜻한 패딩으로 이너는 물론 아우터로도 손색이 없다. ISPO에서 워드에서 수상한 기능성 충전재인 플라텍 알파를 사용했다. 보온성과 투습력이 탁월한 경량 충전재다. 자매품 성격의 '패시브 슬림 패딩 베스트(12만원)'도 보온성과 경량성을 모두 잡은 고기능성 슬림 패딩 베스트이다. 공기 투과율이 높아 세탁이 쉽고 건조도 빠르다. 상당 부분에 재귀반사 디테일을 넣어 디자인 포인트를 주었다. 양형호 기자 rani@donga.com



▲밀레 '드리시티 다운' ▲이젠백 '키엘 라이트 구스다운' ▲아이더 '패시브 슬림 패딩재킷'

'임금님 진상품'으로 설 선물 준비하세요

750년 곳감·제주옥돔 흑돼지·굴비 등
홈플러스 '프리미엄 설 선물세트' 마련
AK플라자는 '무항생제 수산물' 특집전

이번 주말 지나면 설이다.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말은 이럴 때 어울린다. 아직도 설 선물을 장만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 급해질 때다. 예산이 한정된 이상 같은 값이면 조금이라도 더 품질이 좋고, 맛있고, 믿을 만한 제품을 사고 싶은 게 인지상정. 평양냉면은 어디가 유명하고, 브런치는 어디로 가야하고, 짬뽕은 어디가 맛이 있듯 선물도 제 곳을 찾으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아이템을 구할 수 있다. 유통업체마다 설을 앞두고 '간판'으로 내놓은 선물 아이템들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유통업체 '간판상품'을 노려라

경기가 침체됐다고 하지만 오히려 설 선물은 고가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온라인마켓 플레이스 옥션이 설을 앞두고 1252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 선물을 하겠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무려 38%나 된다. 그런데 "1만~5만원 이하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높은 선물을 하겠다"가 31%로 2위였다. 선물이 프리미엄급과 실속급으로 극명하게 나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리미엄 선물이라면 홈플러스에서 준비한 '임금님 진상품'을 추천한다. 홈플러스는 과거 임금님께 올리던 진상품들을 설 선물세트로 마련해 인기를 끌고 있다. '천년 하늘아래 750년 곳감(정상가 30만원·혜밀리카드 회원가 20만원)'은 경북 상주시의 보호수로 지정된 750년 수령의 감나무에서 수확한 곳감이다. 예로부터 임금님만 잡숫던 곳감의 왕이다. 이 감나무에서는 매년 4000여개의 열매만 열려 더욱 가치가 높다. '남실바람에 말린 유명산지 곳감 세트(정상가 10만원·혜밀리카드 회원가 8만



맛집마다 잘 하는 음식이 있듯 유통업체도 간판상품이 따로 있다. 백화점, 마트, 온라인쇼핑 등 유통매체들이 제각기 개성을 살린 설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홈플러스가 선보인 임금님 진상품 선물세트. 사진제공 | 홈플러스

원)은 고종황제 진상품으로 알려진 고종시 꽃감과 전국 유명산지의 꽃감 4종으로 만들었다. 제주도에서 임금님께 진상하던 제주옥돔과 흑돼지로 구성된 '제주가 품은 보물 옥돔+흑돼지 세트(15만원)', 수라상의 단골메뉴인 '이력추적 봄에 잡은 굴비세트 2호(35만원)'도 있다.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AK플라자의 '무항생제 수산물'도 괜찮겠다. AK플라자 분당점은 7일까지 지하1층 푸드홀에서 백화점업계 최초로 친환경 무항생제 수산물 특집전을 연다. 무항생제 새우와 장어는 항생제 없이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정정시스템으로 오염물질과 유해성분을 정화시키는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양식했다. 최고 40%까지 할인 판매한다.

요즘은 설 선물도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 설을 앞두고 캐나다 랍스터, 호주 청정우, 플로

리다 자몽과 같은 글로벌 먹거리들의 품값이 급상승하고 있다.

선물용으로 랍스터를 생각하고 있다면 11번가에 접속해 보자. '항공직송 캐나다 랍스터'가 팬케이크처럼 잘 팔리고 있다. 캐나다 청정해역에서 어획한 싱싱한 랍스터를 항공직송해 살아있는 상태로 배송해준다. '프리미엄 활 랍스터(500g)'가 1만9900원이다. 호주 청정지역인 테즈메니아에서 풀을 먹고 자란 '호주 청정우 구이선물세트2호'는 5만5900원으로 비슷한 구성의 한우세트보다 절반 이상 저렴하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키덜트'라면 롯데마트의 온라인 완구쇼핑몰 토이저러스를 찾으면 된다. '어른아이'들을 위한 키덜트존이 오픈했기 때문이다. '건담 1/48 메가사이즈(6만3000원)', '옥스포드 타운 토이샵(7만1000원)', '드론 CX-10C(3만3300원)' 등 키덜트들의 인기상품을 만날 수 있다. 양형호 기자 양형호 기자

김병관 웹젠 의장 "게임 부정적 인식 바뀌야"

더민주 입당... "업계 선도하는 업체들이 목소리를 모아야"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외부 인재 영입 2호'로 관심을 모은 김병관(사진) 웹젠 이사회 의장이 1일 서울 선릉로 디캠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게임이나 IT업계를 대변하기 위해 정치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15년 동안 이 업계에 있었고 당에서도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관련 일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셋다운제 등 게임 규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시작됐는데, 업계는 피동적으로 움직인 면이 있다"며 "이제는 업계 선도하는 업체들이 나서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치 입문을 선언한 계기도 밝혔다. 평소 관심사였던 장학사업과 벤처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입당을 결심한 이유를 하나만 꼽으라면 평소 지지하던 정당이 분열되는 모습이 답답했다"며 "다른 식으로 도울 수도 있지만 입당까지 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장학사업·벤처육성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NHN게임즈 대표와 웹젠 대표를 역임했고, 현재는 웹젠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김병관 기자 dionys@donga.com

카페 폴 바셋에서 '소화가 잘되는 라떼' 한 잔 어때?

세계적 바리스타 폴 바셋 초청 토크콘서트
매일유업 유당제거우유로 만든 라떼 눈길

커피전문점 폴 바셋이 지난달 30일 폴 바셋 코리아나호텔점(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한국을 방문한 세계 최고의 바리스타 폴 바셋과 고객들이 소통하는 '제1회 플래티넘 멤버십 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폴 바셋은 일반적인 아메리카노 대신 통고메뉴를 선보인다. 통고는 시그니처 블렌드 원두의 에스프레소 에센스만을 추출한 크레마를 담아 폴 바셋이 추구하는 '스위트 디저트 스타일 에스프레소'의 풍미를 깊게 느낄 수 있다. 또 우유 소화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유당제거우유 라떼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커피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행사는 폴 바셋의 멤버십 서비스인 소사이어티의 플래티넘 회원 200명을 초청해 2003년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십(WBC)에서 역대 최연소로 수상한 폴 바셋의 커피와 삶에 대한 철학 및 경험을 함께 나누는 토크 콘서트로 진행됐다. 폴 바셋은 이날 행사에서 시그니처 메뉴인 카페라떼 시연 시 평소 유당불내성으로 우유에 있는 유당을 소화하기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매일유업의 유당제거우유인 '매일 소화가 잘되는 우유'도



세계최고의 바리스타 폴 바셋이 30일 매일유업 커피전문점 폴바셋 코리아나호텔점에서 '매일 소화가 잘되는 우유'를 사용해 커피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매일유업

함께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매일유업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 유당제거우유(락트프리우유)다. 평소 일반 우유를 마시면 소화가 어렵거나, 체내 유당분해효소 감소로 인해 복통과 설사, 가스 등의 유당불내성 증상이 발생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이다. 한편 폴 바셋은 고객들이 커피에 사용되는 우유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매일유업의 '매일우유 오리지널', '매일우유 저지방&고칼슘1%', '매일 소화가 잘되는 우유' 3종을 제공하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뉴발란스 '880한강팩' 이니셜 각인 행사

뉴발란스 코리아는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880한강팩(사진) 구매자를 대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이니셜을 신발에 새겨주는 무료 이니셜 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뉴발란스의 한강팩은 한강의 다채로운 컬러를 모티브로 기획한 코리아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880한강은 뉴발란스만의 핵심 기술인 레브라이트 미드솔이 적용되어 경량성과 쿠셔닝이 강화된 워킹화로 장시간 걸어도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프리미엄 스웨이드 어퍼는 고급스러운 블루, 블랙, 아이보리 컬러가 엮이게 배치되어 한층 업그레이드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 880한강은 총 4가지 색상으로 선보이며 가격은 13만9000원이다. 무료 이니셜 각인 서비스는 온라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2월 3~5일까지 공식 온라인 스토어(www.nbkorea.com)와 뉴발란스 앱스토어에서 880한강팩을 구매하는 선착순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현철 기자 choing2@donga.com

금호타이어,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금호타이어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iF Design Award 2016)'의 운송기기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디자인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iF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의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이 주관하는 국제 디자인 어워드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IDE A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이며 올해로 63년의 전통을 자랑한다. 수상작들은 디자인은 물론 혁신성, 환경 친화성, 완성도, 기능성, 편리성 등의 종합 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올해 금호타이어는 2개 제품이 수상했다. 고급 세단을 위한 디자인 타이어 '엑스타 H381'과 사계절용 프리미엄 타이어 '솔루스 H A31'이다. 정태권 금호타이어 연구기술본부 전무는 "타이어의 디자인은 곧 성능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디자인 기술력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원성열 기자 편집 | 김태진 기자 bong82@donga.com